

사설

‘더 나은 소통’ 여지 남긴 간담회

지난 10일 한균태 총장과 20·21학번 학생들 간의 온라인 간담회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가 개최됐다. 8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오고 간 이날 간담회는 총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 총장은 그동안 양 캠퍼스 총학생회로 대표되는 학생 대표단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온 바 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우리학교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그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과의 자리를 마련해 종합감사의 결과와 대학의 향후 조치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특별장학 협의 과정에서도 학생 대표단에게 대학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나아가 이번 간담회로 한 총장과 다수의 일반 학생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총장과

대학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낯설 20·21학번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은 유관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사용’으로 전략할 것을 우려했으나, 대학본부의 이 같은 계획은 대학 당국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신입생들의 고충을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일반 학생들이 가진 생각을 총장이 직접 들으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략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의

낭만, 즐거움 등을 경험하지 못한 20·21학번 학생들에게 (한 총장이) 직접 인생 및 대학 선배로서의 견해를 들려주며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기획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기다. 고학번 학생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학습내용을 온라인으로 수행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예외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번의 학생들만 총장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적극적인 소통이 계획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점에서 총장의 ‘격려’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속 현황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기조를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 등 적극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의 질문이 기획조정처 선별 과정을 거쳐 총장에게 전달된 것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품은 여러 의문점에 대한 총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여지는 남아있다. 전략기획팀은 우리신문의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총장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있을 소통이 더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전에 오갔던 내용보다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이다.

세시봉

예견된 비극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송과구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2번째 살인을 저지른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는 강한 비난에 휩싸였다.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기 때문이다. 강 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고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5시간, 그러나 경찰과 법무부는 강 씨가 자백하기 전까지 강 씨의 살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전자장치 착용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시상의 위반 사항이 없어 범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범 위험자의 강력범죄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학교도 전자발찌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지난 7월 우리학교가 위치한 동대문구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실거주지가 동대문구인 피의자는 주소를 중랑구로 허위 기재했지만 경찰과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허위 주소로 신상이 등록돼 동대문구 주민들은 피의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없었다. 피의자는 결국 전자발찌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자택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죄의 방향은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향할 수도 있었다.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은 재범 방지,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앞에서 공권력은 무력했다. 전자장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상 비극은 예견돼 있었다.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자발찌의 관리상 허점을 방지할 근본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범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더이상 ‘예견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겨진 이들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만의 역할이 아닌 권력의 감시자인 우리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무고한 희생을 답습하지 않도록 법무부의 실효적인 방지책과 함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온라인 혐오 표현

책상 위 화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누가 쏘았는지 모를 화살 하나가 책상 위에 떨어져 있다.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일까?’ 고형렬의 〈화살〉이라는 시 한 구절이다. 화자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화살을 쏘 만큼 큰 잘못을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누가 무슨 이유로 쏘는지도 모를 화살이 책상 위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는 이렇게 끝난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아파왔다. 혹 이것은 사람들이 대개, 장난삼아 하늘로 쏘는 화살이, 내 책상에 잘못 떨어진 것인지도 몰라!’

요즘 세상에는 책상 위에서 쏠 수 있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맞을 수 있는 화살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에서 쉽게 ‘배설’되는 혐오 표현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을 막히게 하는 혐오

의 말들이 학생들의 책상에도 떨어지고 있다. 어떤 학생은 마음의 상처를 또 다른 혐오 표현으로 내뿜고, 그렇게 확산된 익명의 폭언에 시달리던 한 학생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오늘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학생들이 언제 찔릴지 모를 가시 돋친 말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다.

화살을 쏜 이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난삼아 쏘는 화살이 없도록 그 위험성을 알리고, 때로는 화살을 쏜 이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

화살을 쏘는 이도, 맞는 이도 전부 우리학교 학생들이라면 그 역할을 사기업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화살을 쏜 이를 누가 찾을 것인지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도 혐오는 또 다른 혐오의 말을 낳고 있다.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사례를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드는 일은 학교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학생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일은 결국 학교를 포함한 우리 구성원 모두의 일이다.



만평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태영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